

2020학년도 수시모집

모의적성고사

고 교 명					
고교코드					
이 름					



한신대학교

본 모의고사는 전년도 한신대학교 적성고사 기출문제로 구성하였습니다.

국어영역

[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저는 교사가 되겠다는 결심을 한 이후, 교육에 대해 꾸준한 관심을 가져 왔습니다. 그중 저에게 가장 의미 있었던 일은 교육 재능 기부 동아리 활동 경험입니다. 2학년 1학기가 시작될 무렵, 저는 저의 교육에 대한 재능과 열정을 확인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생각은 ㉠곧 저의 재능을 누군가와 공유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같은 뜻을 가진 친구들과 함께 교육 재능 기부 동아리를 만들었습니다. 학교 선생님의 ㉡도움으로 저와 동아리 친구들은 지역 아동 센터에서 아이들에게 ㉢읽기와 쓰기를 가르치는 봉사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봉사 활동은 제 예상과 달리 순조롭지 않았습니 다. 다섯 살과 여섯 살로 구성된 아이들은 저와 친구들의 ㉣가르침을 순순히 따라 주지 않았고 이러한 분위기로 인해 수업은 어수선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교육에 대한 재능과 열정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잘못된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목적으로 생각하고 아이들을 수단으로만 대한 것이 아닌지 반성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것을 내세우기만 하였을 ㉥뿐 진정으로 아이들을 이해하고 무언가를 함께 배우고 익힐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는 한글 낱자를 읽고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자음과 모음을 반복해서 쓰는 수업을 진행했는데 아이들은 이미 알고 있는 한글 낱자가 많아 제 수업을 지루하게 여기고 자꾸만 딴청을 피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이들에게도 찌푸린 얼굴로 대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점을 반성하여 저는 제가 진행하고 있는 수업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음과 모음을 반복해서 쓰는 수업은 생활 속에서 자주 접하는 ㉧낱말 속에 있는 자음과 모음을 ㉨찾기로 바꾸었고, 찾은 자음과 모음으로 자신이 알고 있는 낱말을 최대한 만들어 보는 게임도 구성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설사 틀리더라도 '할 수 없는 것'보다 '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크게 칭찬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수업을 바꾸자 아이들은 수업에 집중하며 ㉩재미있어 하는 모습

을 보였습니다. 그 모습은 저에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단순한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사가 되고자 하는 저에게 진정한 교육을 실천하는 모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계기로 발전하였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아무리 ㉬어린아이일지라도 제가 지식을 전달한다는 일방적인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배움을 나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이해하고 아이들과 함께하는 소통의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 ㉠~㉥ 가운데 단어 형성 방식이 다른 것은?

- ① ㉠가르침 ② ㉡낱말
- ③ ㉢재미있어 ④ ㉬어린아이

2. ㉡~㉤ 가운데 품사가 다른 것은?

- ① ㉡도움 ② ㉢읽기
- ③ ㉣찾기 ④ ㉤기쁨

3. 밑줄 친 단어의 품사 및 의미가 ㉦~㉨에서의 쓰임과 같은 것은?

- ① ㉦ - 청춘, 곧 인생의 봄은 두 번 다시 오지 않는다.
- ② ㉧ - 고슴도치도 제가 낳은 새끼는 함함하다고 한단다.
- ③ ㉨ - 네가 기분 좋은 것, 그것뿐 다른 건 바라지 않아.
- ④ ㉩ - 네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돈을 마구 써서는 안 되지.

4. 윗글에 쓰인 단어에 나타나는 음운 변동 현상을 설명한 것 가운데 잘못된 것은?

- ① 결심 - 유음화
- ② 접하는 - 거센소리되기
- ③ 목적 - 된소리되기
- ④ 낱말 - 비음화

5. ㉦'자음과 모음을 반복해서 쓰는 수업은'의 문장 성분은?

- ① 주어 ② 목적어
- ③ 부사어 ④ 관형어

[6-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자화상은 초상화에 속하는 장르로 화가가 자기 자신을 그린 그림이다. 전통적으로 초상화가 지배 계급의 전유물이었던 시기에는 화가가 자신의 모습을 그리는 일은 불경한 일로 단죄되기도 했다. 따라서 자화상은 화가의 자의식이 고양되기 시작한 15세기 중엽, 르네상스 시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그려지기 시작한다. 초기 르네상스의 자화상은 화가가 자신의 존재를 그림의 한구석에 그려 넣음으로써 자신이 화폭에 묘사하는 신성한 사건에 목격자로서 참여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었다. 이렇게 화면의 한구석에 참여자로서의 화가 자신을 그리면서 시작된 자화상은 화가가 자신의 자아를 인식하면서 달라지게 된다. 즉 화가가 그림 속의 신성한 사건에서 눈을 떼고 스스로 그림의 주체가 되어 그림 밖으로 시선을 던지면서 독자적인 장르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래서 1500년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화가의 모습만 담은 자화상이 널리 퍼지게 된다. 종교적 사건을 묘사한 성화(聖畵)에서 독립한 자화상이 이제 화가의 자의식, 즉 자신의 존재에 관한 의식을 드러내는 수단이 된 것이다.

(나) 그 후 시간이 흘러가며 새로운 형태의 자화상이 등장한다. 자화상이라는 장르가 화가의 자의식을 표현하는 수단이 아니라 회화의 자의식을 탐구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고흐(1853~1890)의 자화상이다. 고흐는 자화상에서 그림 밖으로 시선을 던지지 않는다. 관람객에게 등을 돌려 얼굴을 감추어 버리고 화폭 위에는 그림을 그리는 화가의 뒷모습 뒤로 거울에 비친 화가의 얼굴과 이를 캔버스에 그린 모상(模相)만 남겨 둔다. 그 결과 화가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자연스레 그림을 그리는 행위, 즉 회화 행위가 전면에 나서게 된다. 결국 주체인 예술가는 사라지고 남은 것은 어떤 대상을 재현하는 회화 행위의 재현뿐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작품은 (㉠)의 재현이 아닌 (㉡)의 재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고흐는 자화상을 이용해 주체의 본성이 아니라 재현의 본성을 주제화하려 했던 것이다.

(다) 고흐의 자화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또 다른 특징은 시뮬라크르의 등장이다. 시뮬라크르는 그리스 철학자인 플라톤에 의해 정의된 개념이

다. 플라톤에 의하면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원형인 이데아, 이데아의 복제물인 현실, 복제의 복제물인 시뮬라크르로 이루어져 있다. 보드리야르는 플라톤의 견해를 활용하여 시뮬라크르를 원본이 없는 복제물, 복제를 복제한 복제물, 즉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대상을 존재하는 것처럼 만들어 놓은 이미지와 같은 인공물이라고 규정한다.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는 시뮬라크르가 실재를 대체한다고 주장한다.

(라)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 보자. 과거에는 현실이 이미지에 선행했다. 낙엽이 떨어지는 한 그루의 나무가 있기 때문에 화가가 이를 화폭에 그린다. 이처럼 이미지는 선행하는 현실을 참조해서 탄생하였다. 하지만 오늘날은 이미지가 현실에 선행하는 경우가 더 많다. 많은 아이들이 사진이나 인터넷에서 개구리를 본 후 실제 개구리를 접한다. 또한 TV나 영화의 범주를 따라 한 각종 모방 범죄가 일어난다. 이미지가 현실을 대체하는 것이다. 결국 현대 사회에서는 실재와 복제물의 관계는 역전되며 더 이상 흉내 낼 대상, 원본이 사라진 복제물인 시뮬라크르들이 더욱 실재 같은 극실재(하이퍼리얼리티)를 생산해 낸다. 이런 측면에서 고흐의 자화상은 실재가 사라지고 시뮬라크르가 현실을 지배하는 현대 사회를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6. (가)~(라)의 소주제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 - 자화상이 독자성을 획득하는 과정
- ② (나) - 고프의 자화상의 특징
- ③ (다) - 플라톤과 보드리야르의 대립
- ④ (라) - 시뮬라크르가 현실을 지배하는 현대 사회

7. 윗글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다양한 예시를 통하여 자화상의 정의를 도출하고 있다.
- ② 자화상의 발생과 변화를 시대순으로 고찰하고 있다.
- ③ 자화상의 구성 요소를 제시한 후 각각의 특성을 분석하고 있다.
- ④ 자화상에 대한 여러 이론을 소개하고 각 이론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있다.

8. 윗글 (나)의 설명을 바탕으로 고프의 자화상을 추론해 보았을 때, 관람객에게 보이는 화가의 얼굴은 몇 개인가?

- ① 0 ② 1 ③ 2 ④ 3

9. ㉠,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 ① ㉠주체 - ㉡재현
- ② ㉠의식 - ㉡사건
- ③ ㉠재현 - ㉡주체
- ④ ㉠사건 - ㉡의식

[10-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효율적 시장 가설’은 1900년대 처음 제기된 후, 1960년대 시카고 대학의 파머 교수에 의해 이론적으로 발전되어, 현재까지 금융 시장을 설명하는 주요한 이론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때 ‘효율적 시장’이란 합리적 투자자들이 서로 투자 이익을 취하기 위해 무한 경쟁이 일어나는 시장으로, 시장에 유입된 정보가 즉각적으로 재화의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을 의미한다. 실제로 이러한 이론에 가깝게 작동되는 시장으로는 주식 시장이 있다. 주식 시장에서 효율적 시장 가설이 성립한다면, 시장에 알려진 정보가 즉시 주가에 반영되면서 주가는 항시적으로 본질적 가치를 유지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시장에 이미 알려진 정보를 이용한 투자 방식이나 전략으로 초과 이익*을 얻을 수 없다.

효율적 시장 가설에서 효율적 시장의 개념은 다소 모호하다. 시장에 유입되는 정보의 범위를 어디까지 한정해야 하는지, 정보가 주가에 반영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려야 즉시 반영되는 것인지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효율적 시장 가설이 실증적 함의를 갖기 위해서는 효율적 시장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의가 필요하다.

파머는 효율적 시장을 시장에 유입되는 정보의 범위에 따라 3가지로 구분했다. 첫째 약형 효율적 시장이다. 이 시장은 유입되는 정보가 과거의 정보로 한정되는 시장이다. 즉 현재의 주식 가격이 과거의 정보, 다시 말해 과거의 주가, 주식 수익률, 거래량 등의 정보를 반영하고 있는 시장이다. 따라서 이 시장에서는 주식과 관련한 과거의 정보만으로는 초과 이익을 얻을 수 없으며, 주식과 관련한 현재의 정보와 공개되지 않은 기업의 내부 정보, 사적 정보를 통해 초과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둘째 준강형 효율적 시장이다. 이 시장에서는 유입되는 정보가 과거의 정보뿐만 아니라 모든 공적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이 때 공적 정보란, 주가, 주식 거래량 등의 정보는 물론 주식 발행 기업의 과거와 현재의 이익, 배당, 노사 관계, 연구 개발, 투자 등 현재까지 일반에 공개된 모든 정보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 시장에서는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 공적 정보로는 초과 이익을 얻을 수 없으며, 공개되지 않은 기업의 내부 정보나 사적 정보를 이용해야만 초과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강형 효율적 시장은 약형과 준강형 효율적 시장이 반영하고 있는

정보들은 물론 기업의 내부 정보나 사적 정보와 같이 일부 시장 참여자만 취득이 가능한 정보까지 주가에 완전히 반영되는 시장이다. 강형 효율적 시장에서는 기업의 본질적 가치가 주가에 항시적으로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정보로도 초과 이익을 취할 수 없지만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가장 높다. 그러나 강형 효율적 시장은 현실에서 실제로 구현되기 어려우며, 현실에서는 시장의 유형에 따라 주가가 형성되는 방법이 달리고 자원 배분의 효율성에도 차이가 발생한다.

한편 주식 시장에 정보가 반영되는 시간도 주식 시장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친다. 정보가 시장에 유입되더라도 그것이 시장 전체에 전파되는 시간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시장 참여자 간에 정보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그것이 주식 투자의 성패를 좌우하기도 한다. 1980년대 미국의 주식 시장을 대상으로 한 실증 연구에 따르면, 공시된 정보가 주가에 반영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대략 15분 정도라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 하지만 IT 기술이 발전하고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한 시장 접근성이 확대되면서 현재는 새로운 정보가 순식간에 시장 전체로 파급된다. 이처럼 공시된 정보가 주가에 반영되는 시간이 점점 짧아지게 되면 주식 시장은 더욱 효율적 시장에 가까워진다. 아울러 시장의 거래 제도와 정책이 개선되어 시장 참여자들이 각종 정보에 공평하고 쉽게 접근하면 시장의 효율성은 더욱 높아진다.

주식 시장이 강형 효율적 시장이 되면 주가는 기업의 진정한 본질적 가치를 항시적으로 반영하게 된다. 이에 투자자가 주가를 기준으로 투자하면 우량 기업에는 보다 많은 자원이 유입되고 비우량 기업의 경우에는 자본이 적게 유입되거나 유출되어, 시장의 힘에 의해 합리적인 자원 배분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효율적 시장 가설은 금융 시장과 관련하여 학문적, 이론적, 실무적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패러다임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으며 현대 자본주의 체제의 효율성을 위한 필요 조건으로 인식되고 있다.

*초과 이익: 기업의 규모, 업종에 따라 예상되는 평균적, 전형적 이익인 정상 이익을 초과하는 이익. 주식의 경우, 그 주식이 거래되는 주식 시장 전체의 평균적인 성과를 뛰어넘는 이익을 의미하며, 우연히 실현되는 이익이 아니라 체계적인 계획에 따라 실현되는 이익이다.

10.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주식 시장에서 재화의 가치는 유입된 정보에 따라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 ② 이미 시장에 반영된 정보로는 초과 이익을 기대할 수 없다.
- ③ 강형 효율적 시장은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현실에서 실제로 구현되기 쉽다.
- ④ IT 기술의 발전은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로 작동한다.

11. ‘효율적 시장 가설’에 비추어 보았을 때, 시장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보기>—

- | | |
|----------|-----------|
| ㉠ 정보의 범위 | ㉡ 정보의 정확성 |
| ㉢ 정보의 속도 | ㉣ 정보의 공익성 |

- ① ㉠, ㉡
- ② ㉠, ㉢
- ③ ㉡, ㉣
- ④ ㉢, ㉣

12. <보기>에서 강형 효율적 시장에서 공개되는 정보를 모두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보기>—

- | |
|-----------------|
| ㉠ 기업의 작년 주식 거래량 |
| ㉡ 기업의 작년 배당 |
| ㉢ 기업의 현재 노사관계 |
| ㉣ 기업의 투자 계획 |

- ① ㉠
- ② ㉠, ㉡
- ③ ㉠, ㉡, ㉢
- ④ ㉠, ㉡, ㉢, ㉣

13.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소비(消費)되는
- ② 소급(溯及)되는
- ③ 소요(所要)되는
- ④ 소통(疏通)되는

[14-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인간의 뇌에는 약 1,000억 개의 신경 세포가 있다. 각 신경 세포는 1,000개가 넘는 다른 신경 세포들과 관계를 맺어 100조 개가 넘는 신경 접속을 만들어 낸다. 우리의 감각 경험은 바로 이 어마어마한 신경 회로 안에서 발생하는 전기적 현상의 결과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복잡한 인간의 신경 회로를 조작하는 일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그 연구의 시초는 뇌에 직접 전극을 꽂아 전류를 흘려보내는 실험이었다.

제임스 울즈는 쥐의 쾌락 중추에 전극을 심은 뒤, 쥐가 버튼을 건드리면 전류가 흐르도록 조건화했다. 그러자 쥐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탈진할 때까지 버튼을 건드렸다. 쾌락 중추에 전극이 꽂힌 쥐는 생존 활동을 포기하고 자신에게 쾌락만 부여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기술로는 이와 같이 전극을 꽂아 직접 전류를 흐르게 하는 것으로 인간 뇌의 모든 신경 회로를 조작하기는 쉽지 않다. 인간의 뇌에는 초고밀도의 신경 세포가 밀집되어 있어 전극을 자칫 잘못 꽂았다가는 엉뚱한 신경 회로가 자극되어 예상치 못한 반응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신경 회로 조작에 대한 (㉠)을 보여준 계기는 나겔과 페터 헤게만이 빛을 쬐어 주면 빛을 향해 움직이는 녹조류 클라미도모나스를 찾아낸 것이다. 이들은 이 녹조류가 양의 주광성*을 나타낸다는 것에 주목하여 빛에 대한 감각과 그 빛으로 이동하는 행동 사이를 매개하는 무언가가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빛을 쬐어 주면 클라미도모나스 안에 전류가 흐른다는 것을 단서로, 그들은 단백질인 채널로돕신이 빛을 감지하면 채널로돕신의 통로가 열리게 되고 빛이 감지되는 동안에는 그 통로로 칼슘과 나트륨 같은 ㉡양이온이 세포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게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양이온들이 들어오면서 세포 내부와 외부의 전위차가 생겨서 활성화된 세포가 전기 신호를 전달하는 것을 확인했다. 물론 빛이 감지되지 않으면 채널로돕신의 통로는 다시 닫혔다. 채널로돕신을 이용하여 표적 세포만을 정확하게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을 발견한 것이다.

이에 나겔과 페터 헤게만은 예쁜꼬마선충을 이용하여 채널로돕신에 대한 연구를 본격화했다.

가는 철사로 예쁜꼬마선충의 머리를 두드리면 촉각 신경들이 켜져 뒤로 도망가는 행동 반응이 관찰된다. 촉각 신경에 달려 있는 감각 센서들이 두드리는 자극을 감지하여 뒤로 도망가는 행동을 하게 하는 신경 회로를 켜기 때문이다. 그들은 예쁜꼬마선충의 촉각 신경 세포에 채널로돕신을 발현시켰다. 그런 다음 빛을 쬐어 주었더니 예쁜꼬마선충이 뒤로 피하는 반응을 보였다. 머리를 두드리는 물리적 자극이 가해지지 않았는데도 예쁜꼬마선충은 마치 누가 자기 머리를 두드렸다는 듯이 행동한 것이다.

*주광성: 생물이 빛 자극에 대하여 가지는 주성. 밝은 빛을 향하는 경우를 양의 주광성, 그 반대를 음의 주광성이라고 함.

14.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인간의 감각 경험은 전기적 현상의 결과물이다.
- ② 쥐가 버튼을 지속적으로 건드린 것은 쾌락을 위해서였다.
- ③ 채널로돕신은 광 신호를 전기 신호로 전환하는 구실을 한다.
- ④ 예쁜꼬마선충의 촉각 센서는 빛을 감지하여 반응한다.

15. ㉠에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능성 ② 필연성
- ③ 법칙성 ④ 위험성

16. ㉡‘양이온’의 ‘양’과 그 의미가 상통하는 것은?

- ① 우리나라 여자 양궁은 세계 정상의 수준을 자랑한다.
- ② 사랑과 미움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 ③ 투베르쿨린 접종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 ④ 전문 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17. 윗글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나겔과 페터 헤게만의 발견과 실험의 내용과 거리가 먼 것은?

- ① 빛과 행동의 매개 메커니즘 해명
- ② 직접적 전기 자극을 대신할 빛 자극
- ③ 인간의 신경 회로 조작에 대한 단서 제공
- ④ 인간의 신경 회로 정보 규명

[18-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흉악 범죄를 일으킨 청소년에게는 성인과 동일한 수준의 강력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최근 청소년이 저지른 흉악 범죄에 대한 보도가 급증한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주장이 나온 이유가 충분히 이해된다.

청소년의 흉악 범죄와 관련하여 최근 제기된 ‘소년법 개정’ 청원에는 형사 미성년의 연령을 낮추자는 의견, 소년법의 적용 연령을 낮추자는 의견, 흉악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의 형벌을 감경하는 규정을 삭제하자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이 섞여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의견들은 기본적으로, 범법자가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예외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공통된 취지이다. 따라서 나는 ‘소년법 개정’ 주장을, 흉악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의 형을 감경하는 규정을 폐지하자는 것으로 판단한다.

소년법 개정 주장은, 소년법의 감경 규정을 폐지하면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그에 응당한 벌을 주므로 정의를 실현할 수 있으며, 자신의 범죄 행위로 인해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될 것이므로 청소년의 범죄 행위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주장이 정당하려면 첫째, 청소년에게 성인과 동일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정의에 부합해야 하며, 둘째, 무거운 형벌이 청소년의 범죄를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어야 한다.

형벌이란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인 범죄를 일으켜 법질서를 무너뜨린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제재 수단이다. 따라서 형벌이 정의에 부합하고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범법자가 범죄를 저지를 당시 자신의 행위가 법을 위반하는 것이고 동시에 이러한 행위로 인해 어떤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형벌을 통한 제재가 적절해야 한다.

결국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게 어떠한 형벌을 가할 것인가의 문제는 해당 청소년이 그 행위의 책임을 판단할 인지 능력과 사고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와 관련된다. 또한 청소년에게 가하는 형벌이 적절한지 역시 중요한 문제가 된다. 민법은 만 19세 미만을 미성년자로 보고 성인에 비해 제한된 권리만을 인정한다. 공직 선거법은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이는 청소년은 아직 인지 능력과 사고 능력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한 상태이며, 성인이 아닌 교육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이다. 권리와 책임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따라서 18세 미만 청소년의 법정 최고형을 20년의 징역으로 규정한 것은 다른 법령들이 청소년에게 제한된 권리만을 인정하는 것을 고려할 때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더구나 교화의 목적상 청소년이 아직 성장 중임을 고려하면 그 이상의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물론 과거에 비하면 오늘날 청소년들은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숙했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형사 미성년의 연령이나 소년법의 적용 연령을 낮추는 문제는 우리 사회가 몇 세부터를 성인으로 볼 것인가와 함께 논의되어야 할 문제이며, 처벌의 경우만 따로 생각하는 것은 단지 여론의 분노를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18. 필자의 의도를 가장 정확히 표현한 것은?
- ① 형사 미성년 연령이나 소년법 적용 연령을 근거 없이 낮추면 안 된다.
 - ② 청소년 범죄를 줄이는 방법으로 청소년에 대한 형벌을 강화해서는 안 된다.
 - ③ 청소년을 성인으로 인정하고 대우해야 한다.
 - ④ 청소년에 대한 형벌을 강화하려면 먼저 청소년의 권리를 확대해야 한다.
19. 밑글에서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은?
- ① 자신과 대립된 주장들을 제시하고 종합하였다.
 - ② 청소년이 미성년이란 점을 강조하고 있다.
 - ③ 필자는 청소년 관련 법률에 대해 잘 알고 있다.
 - ④ 문제 해결의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20. 밑글의 논지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무거운 형벌이 청소년의 범죄 예방 효과가 없으리란 추론이 가능한 구체적 자료가 필요해.
 - ② 권리와 책임을 동시에 고려해야 정의로운 것이라고 주장할 구체적 근거가 필요해.
 - ③ 흉악 범죄에 대한 형벌적 제재의 적절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겠어.
 - ④ 성인에게 부여되는 권리가 청소년에게는 제한되는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야겠어.
21. 아래는 도시 이름과 그 로마자 표기를 이어 놓은 것이다. 올바르지 않은 것은?
- ① 대구 - Daegu ② 강릉 - Gangreung
 - ③ 광주 - Gwangju ④ 인천 - Incheon

[22-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회사에서는 준비위원회에서 통과된 내용으로 사원들의 제복을 맞추지만 민도식과 우기환은 제복 맞추는 것을 거부한다. 이에 사장은 두 사람을 불러 이야기를 나눈다.

“아주 좋은 말을 했어. 하지만 그건 일이 실천에 옮겨지기 전에 했어야 할 얘기야. 대다수 사원들 지지를 얻어서 실천 단계에 들어선 지금은 사정이 달라. 그리고 기업 발전에 단결력이 중요하나 창의력이 중요하냐 하는 문제는 자네가 아니라 내가 결정할 문제야. 또 제복을 입었다고 어제는 있던 창의력이 오늘 싹 죽는다는 논리도 설득력이 없어. 민 군, 자네는 일찍이 제복 제도를 도입한 K직물이 창의력 없이 그저 눈감뻥감으로 오늘날의 위치에 올라섰다고 생각하냐?”

“K직물은 사정이 다릅니다.”

잠자코 있던 우기환이가 불쑥 말했다.

“호오, 그래? 어떻게 다르지?”

“자기 개성에 맞는 옷을 입을 권리를 포기할 때는 뭔가 그 이상의 보상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K직물의 기업 정신은 아주 훌륭하다고 봅니다.”

이때 옆방이 다소 소란해졌다. 사장실 도어 저쪽에서 여비서가 누군가하고 들어가겠다는니 안 된다는니 하면서 실랑이하는 눈치였다. 그 소리를 듣더니 사장의 낯빛이 싹 달라졌다.

“자네들이 이렇지 않아도 난 지금 복잡한 일이 많은 사람이야. 우 군이 K직물을 동경하는 그 심정은 나도 알아. 허지만 앞으로 가까운 장래에 다른 사람들이 자네들을 동경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나도 노력하고 자네들도 적극 협조해야 되잖나. 그동안을 못 참아서 협조할 수 없다면 별 수 없지. 이런 일엔 누군가 한 사람쯤 희생이 따른다는 사실을 각오해야 돼.”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희생이 되죠. 피고용자한테도 권리는 있습니다. 들어올 때는 제 맘대로 못 들어오지만 나갈 때는 제 맘대로 나갈 수 있으니까요.”

우기환이가 분연히 소파에서 일어나 빠른 걸음으로 도어를 향해 갔다. 순식간의 일이었다. 사장실을 나서는 우기환이와 엇갈려 웬 사내가 짹싸게 뛰어들었다. 다방에서 두 번 본 적이 있는 생산부의 잡역부 권 씨였다. 사장실로 들어서기

무섭게 권 씨는 민도식을 향해 눈자위를 하얗게 부릅떠 보았다. 우기환의 돌연한 행동에 초벌 놀랐던 도식은 권 씨의 험악한 표정에 재벌 놀라면서 엉거주춤 궁둥이를 들었다. 빨리 자리를 비켜달라는 권 씨의 무언의 협박이 빗발치고 있었다.

“죄송해요, 사장님. 한사코 안 된다는데 두 부득 부득 우기면서 이 사람이…….”

뒤쫓아 들어온 여비서를 손짓으로 내보낸 다음 사장이 말했다.

“어서 오게, 권 군.”

자기보다 더 사정이 절박한 사람을 위해서 민도식은 사장실에서 물러나지 않을 수 없었다.

“잘 생각해서 스스로 결정을 내리도록 하게.”

도어가 채 닫히기 전에 사장의 곁곁한 목소리가 도식의 등 뒤에 따라붙는다.

“장 선생 집에 전화 걸었더니 부인이 받데요. 새로 맞춘 유니폼 입구 아침 일찍 출근했다고요.”

아내의 바가지 굵는 소리로 창업기념일의 아침은 시작되었다. 체육대회가 열리는 제1공장까지 가자면 다른 날보다 더 일찍 나서야 되는데도 여전히 멍기적거리고만 있는 남편 곁에서 아내는 시종 근심스러운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 제복 때문에 총각 사원 하나가 사표를 던졌다는 소문을 아내는 믿지 않았다. 사표를 제출한 게 아니라 강제로 모가지가 잘린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까짓것 난 필요 없어. 거기 아니면 밥 빌어먹을 데 없는 줄 알아? 세상엔 아직도 유니폼 안 입는 회사가 수도룩하다 말야!”

거듭되는 재촉에 이렇게 큰소리로 대거리는 했지만 결국 민도식은 뒤늦게나마 집을 나서고 말았다.

시내를 멀리 벗어나서 교외에 널찍하게 자리잡은 제1공장 앞에 당도했을 때는 벌써 개회식이 시작된 뒤였다. 공장 정문 철책 너머로 검정 곤색 일색의 운동장을 넘어다보는 순간 민도식은 갑자기 숨이 턱 막혀 움을 느꼈다. 새로 맞춘 제복으로 단장한 남녀 전 사원이 각 부서별로 군대 처럼 질서 정연하게 도열해 서서 연단에 선 지휘자의 손끝을 우러러보며 사가(社歌)를 제창하기 직전의 예비 운동으로 목청을 가다듬는 헛기침들

을 하고 있었다. 이윽고 공장 일대를 한바탕 들었다 놓는 우렁찬 노래가 터지기 시작했다. 노래 부르는 사원들 모두가 작당해서 지각한 사람을 야유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검정 곤색의 제복들이 일치단결해가지고 사복 차림으로 꿈무늬에 따라붙으려는 유일한 사람을 완강히 거부하는 듯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세상 전체가 온통 제복투성이인 가운데 저 혼자만 외톨이로 떨어져 있는 셈이었다. 자기 한 사람쯤 불참한다 해도 아무렇지도 않게 체육대회 개회식은 진행될 수 있다는 사실이 민도식을 무척 화나면서도 그지없이 외롭게 만들었다. 정문으로 들어서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뒤돌아서서 나오지도 못한 채 그는 일단 멈춘 자리에 붙박여 버린 듯 언제까지고 움직일 줄을 몰랐다.

- 윤희길, <날개 또는 수갑>에서

22. 윗글에 대한 이해와 감상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시간의 역순 구성으로 사건을 입체적으로 조망하고 있다.
- ② 인물들 간의 대화를 통해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여운이 있는 결말을 통해 새로운 사건을 암시하고 있다.
- ④ 상상적 공간을 묘사하여 진행되는 사건의 허구성을 강조하고 있다.

23. 윗글의 내용으로 볼 때 제복의 착용에 대해 순응적인 태도를 가진 인물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 ① 우기환 - 민도식의 처 - 민도식
- ② 우기환 - 민도식 - 민도식의 처
- ③ 민도식의 처 - 민도식 - 우기환
- ④ 민도식의 처 - 우기환 - 민도식

24. 윗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작품의 제목을 바꿀 때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유 또는 책임
- ② 희망 또는 운명
- ③ 진보 또는 안정
- ④ 개성 또는 획일성

[25-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각설, 이때 춘풍의 처, 가장을 이별하고 ㉠백 가지로 생각하며 주야로 탄식하는 말이,

“멀고 먼 큰 장사에 소망 얻어 평안히 돌아오기 천만 축수 기다리오.”

하되 춘풍이 아니 오고, 풍편에 오는 말이 서울 사는 이춘풍이 평양 장사 내려가서 추월을 작첩하여 호강으로 노닐다가, 수만금 재물 다 없애고 추월에게 구박 맞아 사환한단 말을 듣고, 가슴을 두드리며 통곡하는 말이,

“애고애고 이 말이 웬 말이고. 슬프다 이내 가장 나와 같이 만났건만, 어이 그리 허탕하고. 청루미색에 한 번 치패(致敗)*도 어렵거든 만리타향에 막중국전(莫重國錢)을 대돈변*으로 내어 가지고, 또 낭패한단 말인가. 애고 답답스런지고, 누를 바라고 산단 말인가. 전생에 무슨 죄로 여자가 되어 나서 가장 한번 잘못 만나 평생 고생하는구나. 이내 팔자 이렇도록 되었는데. 어찌하여 살잔 말인가. 박명한 이내 팔자 도망하기 어렵다. 종남산 다다라서 물명주 질긴 수건 한 끝은 나무에 매고 한 끝은 목에 매어 죽고지고. 여자가 되어 나서 이런 팔자 또 있는가. 염마국 십전 대왕 아귀사자 빨리 보내어 내 목숨을 잡아오.”

이를 갈며 하는 말이,

“평양을 찾아가서 추월의 집 찾아 불문곡직(不問曲直) 달려들어 추월의 머리채를 감아주고, 춘풍에게 달려들어 허리띠에 목을 매어 죽으리라.”

악을 내어 울다가 도로 풀쳐 생각하되,

“이리도 못 하리라 어이하야 살잔 말인가. 내 가장을 경성으로 데려다가 살릴지라도 어찌하리오. 아무리 생각하여도 할 수가 전혀 없다. 소년에 패가하여 일신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주야로 품을 팔아 전곡 빛을 값은 후에 의식 걱정 아니하고 우리 양주 백년화락하겠더니, 원수로다, 평양 장사 원수로다.”

이렇듯이 지내는데 뒷집의 참판 댁이 있어, 노대감은 돌아가고 만자제 문장으로 소년 급제하여 갖은 청환(淸宦) 다 지내고 참판으로 ㉡근년에 평양 감사 부망(副望)*으로 불구에 평양 감사 한단 말 듣고 춘풍의 처 계교를 생각터니, 그 댁이 빈한하여 국록을 타서 수다 식구 사는 중에, 그 대부인 있단 말을 듣고 침재 품을 얻으려고 그 댁에 들어가니, 후원 별당 깊은 곳에 참판의 대부인이 평상에 누워 행세 가난키로 식사도 부실하고 초취하다. 춘풍 아내 생각하되, 이 댁에 부치어서 가장을 살려 내고 추월을 설치하여 보리라.

마음을 단단히 먹고 침재 품을 힘써 팔아 얻은 돈냥 다 들여서 참판 댁 대부인 조석 진지 차려 간다.

-작자 미상, <이춘풍전(李春風傳)>에서

*치패: 살림이 아주 결판남.

*대돈변: 비싼 이자로 돈을 빌림.

*부망: 벼슬자리에 추천된 세 사람의 후보자 가운데 둘째가는 사람.

25. 윗글에 드러난 당대의 사회상으로 보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상업의 융성
- ② 여성 의식의 성장
- ③ 남성 권위의 추락
- ④ 양반 신분의 몰락

26. ㉠에 담겨 있는 생각이나 정서로 보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우려
- ② 근심
- ③ 기대
- ④ 확신

27. <보기>는 소설의 복선(伏線)이라는 관점에서 ㉡을 이해할 때, 이후 일어났을 만한 일을 두고 논의한 의견들이다. 괄호에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영희 : 춘풍 처로서는 추월을 혼내 주고 또 남편도 데려오고 해야 했는데, 한낱 아녀자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고, 힘 있는 사람의 도움이 있어야 했을 터이니, 참판은 평양 감사가 되어 갔을 것이고 춘풍 처도 따라갔을 거야.

인애 : 그러나 따라갔어도 당시 사회에 아녀자가 전면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까? 불가능한 일이었을 거야. 그런데 자신이 직접 나서지 않으면, 추월을 혼내면서 복수심도 풀고, 또 남편을 혼내면서도 깨우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그리고 돈도 되찾는 것이 쉽지 않았을 터인데, 그것 참...

현주 : 그래, 그럼 이렇게 되었으면 모든 게 합리적으로 이루어졌을 것 같은데. () 하는 거야. 어때?

- ① 춘풍 처가 남자 관원으로 위장
- ② 춘풍 처가 평양 감사에게 자세히 말하고 부탁
- ③ 춘풍 처가 돈을 들여 해결사를 고용
- ④ 춘풍 처가 추월이와 협상을 벌여 남편을 구원

[28-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공산(空山)의 싸힌 낚흙 삭풍이 거두 부러
 세구름 거느리고 ㉡눈조차 모라오니
 ㉢천공(天公)이 호스로와 옥으로 고졸 지어
 만수천림(萬樹千林)을 꾸며곰 낼세이고
 압 여흙 ㉣리 어려* ㉤독목교(獨木橋) 빗젓는듯
 막대 맨 늘근 중이 어너 델로 간닷 말고
 산옹(山翁)의 이 부귀를 놉드려 현스마오
 경요굴(瓊瑤窟) ㉥은세계(隱世界)를 츠즈리 이
 실세라

산중의 벗이 업서 한기(漢紀)*를 빠하 두고
 만고 인물을 거스려 헤여흐니
 성현도 만쿠니와 호걸도 하도 할사
 하늘 삼기실 제 곳 무심홀가마논
 엇디흔 시운(時運)이 일락배락* 흐얏논고
 모를 일도 하거니와 애들옴도 그지업다
 기산(箕山)의 늘근 고불 귀는 엇디 싯똥던고*
 일표(一瓢)를 쉼턴 후의* 조장*이 ㉦장 놓다

- 정철, <성산별곡(星山別曲)>에서

*㉣리 어려: 가로 얹어.
 *한기: 책.
 *일락배락: 흥했다가 망했다가.
 *기산의 ~ 싯똥던고: 기산에 숨어 살던 허유가 임금의 자리를 주겠다고 요임금의 말을 듣자, 이를 거절하고 귀를 찢었다는 고사.
 *일표를 쉼턴 후의: 허유가 표주박 하나도 귀찮다고 핑계하고.
 *조장: 기개 있는 품형.

(나)

고향이 고향인 줄도 모르면서
 긴 장대 휘둘러 ㉧까치밥 따는
 서울 조카아이들이여
 그 까치밥 따지 말라

남도의 빈 겨울 ㉨하늘만 남으면
 우리 마음 얼마나 허전할까
 살아온 이 세상 어느 물굽이
 소용돌이치고 휩쓸려 배 주릴 때도
 공중을 오가는 날짐승에게 길을 내어주는
 그것은 따뜻한 ㉩등불이었으니
 철없는 조카아이들이여
 그 까치밥 따지 말라

사랑방 말쿠지에 ㉪짚신 몇 죽 걸어 놓고
 할아버지는 무덤 속을 걸어가시지 않았느냐
 그 짚신 더러는 외로운 길손의 길보시가 되고
 한밤중 동네 개 킁킁 짚어 그 짚신 짚어지고
 아버지는 다시 새벽 두만강 국경을 넘기도 하
 였느니

아이들아, 수많은 기다림의 세월
 그러니 서러워하지도 말아라
 눈 속에 익은 까치밥 몇 개가
 겨울 하늘에 떠서
 아직도 너희들이 가야 할 머나먼 길
 이렇게 등 따습게 비취 주고 있지 않느냐.

- 송수권, <까치밥>

28. (가)와 (나)의 공통점은?

- ① 목가적 주제 의식
- ② 정형시적 형태
- ③ 계절적 배경
- ④ 사회역사적 인식

29. (가)의 ㉠~㉥ 가운데 그 의미가 ㉥'은세계'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공산
- ② ㉡눈
- ③ ㉢천공
- ④ ㉤독목교

30. (나)의 ㉧~㉩ 가운데 그 성격이 다른 것은?

- ① ㉧까치밥
- ② ㉨하늘
- ③ ㉩등불
- ④ ㉪짚신

<다음 쪽에 수학영역이 시작됩니다.>

수학영역

31. $\sqrt[3]{8} \times \frac{\sqrt{\sqrt{2}}}{2}$ 의 값은?

- ① 2 ② $2^{\frac{1}{2}}$ ③ $2^{\frac{1}{3}}$ ④ $2^{\frac{1}{4}}$

32. $\left(\frac{1-i}{1+i}\right)^7$ 의 값은? (단, $i = \sqrt{-1}$)

- ① 1 ② -1 ③ i ④ $-i$

33. 함수 $f(x) = x(2x^2 - 5x)$ 에 대하여 $f'(2)$ 의 값은?

- ① 1 ② 2 ③ 3 ④ 4

34. $\log 2 = a$, $\log 3 = b$ 일 때, 다음 중 $\log_3 5$ 를 a, b 로 옳게 표현한 것은?

- ① $\frac{a+1}{b+1}$ ② $\frac{a}{b+1}$ ③ $\frac{1-a}{b}$ ④ $\frac{a+1}{b}$

35. 다음 연립부등식이 나타내는 영역의 넓이는?

$$\begin{cases} x+y \geq 2 \\ x^2+y^2 \leq 4 \end{cases}$$

- ① $2\pi+2$ ② $2\pi-2$
 ③ $\pi+2$ ④ $\pi-2$

36. $\int_1^3 (3x+1)^2 dx - \int_1^3 (3x-1)^2 dx$ 의 값은?

- ① 42 ② 44 ③ 46 ④ 48

37. 확률변수 X 의 확률분포가 다음 표와 같다.

X	3	4	5	6	계
$P(X=x)$	$\frac{1}{10}$	$\frac{1}{5}$	$\frac{3}{10}$	$\frac{2}{5}$	1

$V(X)$ 의 값은?

- ① $\frac{1}{2}$ ② 1 ③ $\frac{3}{2}$ ④ 2

38. 세 조건 p, q, r 에 대하여 두 명제 $p \rightarrow q$ 와 $q \rightarrow r$ 가 모두 참이라 할 때, 다음 중 항상 참인 명제는?

- ① $\sim q \rightarrow \sim r$ ② $\sim p \rightarrow \sim r$
 ③ $\sim r \rightarrow \sim p$ ④ $\sim p \rightarrow \sim q$

39. 다항함수 $f(x)$ 에 대하여 $f'(2) = 3$ 일 때,
 $\lim_{h \rightarrow 0} \frac{f(2+h) - f(2-h)}{h}$ 의 값은?

- ① 2 ② 4 ③ 6 ④ 8

40. 두 집합 A, B 에 대하여

$$n(A) = 19, n(B) = 7, n(A \cup B) = 20$$

일 때, $n(A \cap B)$ 의 값은?

- ① 2 ② 4 ③ 6 ④ 8

41. 곡선 $y = x^3 - 1$ 위의 점 $(1, 0)$ 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 ① $y = 3x - 3$ ② $y = 3x - 1$
 ③ $y = x - 3$ ④ $y = x - 1$

42. 함수 $f(x) = \sqrt{x+a}$ 와 그 역함수 $y = f^{-1}(x)$ 에 대하여 $f^{-1}(3) = 4$ 일 때, 상수 a 의 값은?

- ① 4 ② 5 ③ 6 ④ 7

43. $\left(x + \frac{2}{x^2}\right)^5$ 의 전개식에서 x^2 의 계수는?

- ① 6 ② 8 ③ 10 ④ 12

44. 모든 항이 양수인 수열 $\{a_n\}$ 에 대하여

급수 $\sum_{n=1}^{\infty} \left(1 - \frac{a_n}{5^n}\right)$ 이 수렴할 때,

$\lim_{n \rightarrow \infty} \frac{3a_n - 5^n}{5^n + 4a_n}$ 의 값은?

- ① $\frac{1}{5}$ ② $\frac{2}{5}$ ③ $\frac{3}{5}$ ④ $\frac{4}{5}$

45. 두 직선

$$kx + y + 1 = 0, \quad 2x + (3k + 1)y + 3 = 0$$

에 대하여 두 직선이 서로 평행할 때, 상수 k 의 값은?

- ① $-\frac{5}{2}$ ② -2 ③ $-\frac{3}{2}$ ④ -1

46.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서로 다른 두 수를 택할 때, 이 두 수의 곱이 홀수가 되도록 택하는 경우의 수는?

- ① 8 ② 10 ③ 12 ④ 14

47. 일대일 대응인 함수 f 와 함수 $g(x) = 2x + 3$ 이 모든 실수 x 에 대하여 $(g \circ f)(x) = 3x + 5$ 를 만족시킬 때, $(g \circ (g \circ f^{-1})^{-1})(3)$ 의 값은?

- ① 3 ② 5 ③ 7 ④ 9

48. 다항함수 $f(x)$ 에 대하여

$$f(x) = x^3 + \int_0^1 f'(t) dt$$

일 때, $f(0)$ 의 값은?

- ① 1 ② 2 ③ 3 ④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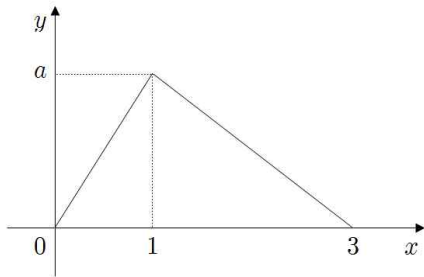
49. 수열 $\{a_n\}$ 이 $a_1 = -1$ 이고 모든 자연수 n 에 대하여

$$a_{n+1} = a_n + \frac{1}{(n+1)(n+2)}$$

을 만족시킬 때, a_4 의 값은?

- ① $-\frac{7}{10}$ ② $-\frac{3}{4}$ ③ $-\frac{4}{5}$ ④ $-\frac{9}{10}$

50. 연속확률변수 X 가 갖는 값의 범위는 $0 \leq X \leq 3$ 이고, 확률변수 X 의 확률밀도함수 $f(x)$ 의 그래프가 다음 그림과 같다.



상수 a 의 값은?

- ① $\frac{1}{3}$ ② $\frac{1}{2}$ ③ $\frac{2}{3}$ ④ $\frac{3}{4}$

51. 이차함수 $f(x) = ax^2 - bx$ 는 $x = \frac{1}{2}$ 에서 극대이다. 이 곡선과 x 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frac{1}{6}$ 일 때, 두 상수 a, b 에 대하여 $a+b$ 의 값은?

- ① -2 ② $-\frac{3}{2}$ ③ 1 ④ $\frac{3}{2}$

52. 6 개의 문자 a, b, c, c, d, d 를 일렬로 나열할 때, a 와 b 가 서로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는?

- ① 120 ② 140 ③ 160 ④ 180

53. 함수 $f(x)$ 에 대하여 $\lim_{x \rightarrow 1} \frac{2f(x)-1}{x-1} = 3$

일 때, $\lim_{x \rightarrow 1} \frac{f(x)-2\{f(x)\}^2}{x^2-1}$ 의 값은?

- ① $-\frac{1}{4}$ ② $-\frac{1}{2}$ ③ $-\frac{3}{4}$ ④ -1

54. 수열 $\{a_n\}$ 이 $\sum_{k=1}^{10} a_k = \sum_{k=1}^9 (a_k + k)$ 를 만족시

킬 때, a_{10} 의 값은?

- ① 45 ② 47 ③ 49 ④ 51

55. 두 사건 A, B 가 서로 독립이고

$$P(B) = \frac{1}{4}, \quad P(A \cap B) = P(A) - P(B)$$

일 때, $P(A)$ 의 값은?

- ① $\frac{1}{2}$ ② $\frac{1}{3}$ ③ $\frac{1}{4}$ ④ $\frac{1}{5}$

56. 두 양수 x, y 에 대하여 $x+y=7$ 일 때,

$\frac{1}{x} + \frac{1}{y}$ 의 최솟값은?

- ① $\frac{2}{7}$ ② $\frac{4}{7}$ ③ $\frac{6}{7}$ ④ $\frac{8}{7}$

57. 주머니 속에 1, 2, 3, 4가 적힌 구슬이 각각 3개씩 모두 12개가 들어있다.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3개의 구슬을 동시에 꺼낼 때, 꺼낸 구슬이 3이 적힌 구슬이 2개이고 1 또는 2가 적힌 구슬이 1개일 확률은?

- ① $\frac{9}{110}$ ② $\frac{13}{110}$ ③ $\frac{17}{110}$ ④ $\frac{19}{110}$

58. 공차가 양수인 등차수열 $\{a_n\}$ 이

$$a_3 + a_9 = 0, \quad |a_3| + |a_9| = 48$$

일 때, $a_n > 0$ 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n 의 최솟값은?

- ① 4 ② 5 ③ 6 ④ 7

59. 어느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는 책 한 권의 무게는 평균이 800 g, 표준편차가 36 g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이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는 책 중에서 임의로 한 권을 선택할 때, 이 책의 무게가 782 g 이상이고 854 g 이하일 확률을 다음 표준정규분포표를 이용하여 구한 것은?

z	$P(0 \leq Z \leq z)$
0.5	0.1915
1.0	0.3413
1.5	0.4332
2.0	0.4772

- ① 0.5328 ② 0.6247 ③ 0.6687 ④ 0.7745

60. 함수 $f(x)$ 가 모든 실수 x 에 대하여 $f(x+2) = f(x)$ 를 만족시키고,

$$f(x) = \begin{cases} 5x+a & (0 \leq x < 1) \\ -3x^2+bx+4 & (1 \leq x < 2) \end{cases}$$

이다. 함수 $f(x)$ 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일 때, 두 상수 a, b 에 대하여 $a+b$ 의 값은?

- ① 1 ② 2 ③ 3 ④ 4

2020학년도 적성고사 주요사항 안내

1. 적성고사 출제범위 및 시행시간

구분	출제영역	문항수	시간	문항유형	비고
국어영역	문법, 독서, 문학, 화법, 작문	30문항	1시간 (60분)	4지 선다형 객관식 (오답에 대한 감점 없음)	외국어(영어)는 출제하지 않음
수학영역	수학 I, 수학 II, 미적분 I, 확률과 통계	30문항			

2. 적성고사 출제문항 및 점수배점

구분	반영 비율	만점	기본 점수	영역별 문항당 배점	전형총점
인문계열	40%	400점	190점	국어 30문항 × 4점 = 120점 수학 30문항 × 3점 = 90점	학생부 600점 + 적성고사 400점 = 총 1,000점
자연계열	40%	400점	190점	국어 30문항 × 3점 = 90점 수학 30문항 × 4점 = 120점	

3.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전형명	모집단위	반영교과	활용지표
전체전형	전체 모집단위	국어/수학교과 중 3과목 + 영어교과 3과목 + 사회/과학교과 중 3과목	총9과목 석차등급 (9등급)

- 석차등급을 활용(학년별 기준치 없음).
- 특성화고교, 종합고등학교의 전문계열,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출신자 : 3개 학년 동안 학생이 이수한 보통교과 전 과목을 반영함.
- 검정고시 출신자의 경우, 검정고시 취득점수의 평균점수를 본교 자체 환산점수로 산출하여 반영함.
- 적성우수자전형 지원자 중 외국고등학교 출신자의 경우, 적성고사 취득점수를 본교 자체 환산점수로 산출하여 반영함.
- 학생부 성적의 반영과목수가 부족한 자는 지원자격 미달 처리함.



한신대학교

입학홍보처

☎ 18101

경기도 오산시 한신대길 137 (양산동) 한신대학교 입학홍보팀

▶ 전 화 : 031-379-0107~9

▶ 팩 스 : 031-372-6101

▶ 홈페이지 : <http://ent.hs.ac.kr>
